

국힘 혁신위 '전략공천 배제' 제안...중진·친윤 용퇴 압박

4호 혁신안...“대통령실 출신도 예외없이 상향식 공천”

“주류 희생 결단 없인 성공 못해”...당내 갈등 폭발 촉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권고한 '중진·친윤(친윤석열) 희생'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제안이 나온 터라 혁신위의 '용퇴'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이에 당 주류의 반발 또한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지난 17일 4호 혁신안으로 모든 지역구에서의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실 참모를 비교적 당선이 수월한 지역구에 내리꽂는 '낙하산 공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수직적'이라는 지적받아 온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기득권을 가진 중진·친윤 인사들이 물러난 자리에 전략공천 배제를 통해 다시 대통령 측근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새로운 관계 구축이라는 혁신이 달성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혁신위가 제대로 된 혁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진·친윤의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합치 출마와 함께 맞물려야 한다.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정하는 상향식 공천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탄탄한 조직을 구성한 현역 의원이 정치 신인이나 청년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덧붙인 영남에 대체로 분포한 중진·친윤 의원들의 희생 결단이 없으면 경선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구에서 변화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혁신위는 '진정한 혁신'을 기치로 중진·친

윤 용퇴 압박을 재차 이어갈 태세다.

한 혁신위원은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략공천 배제를 통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진들의 희생이 전제돼야 한다”며 “중진·친윤 의원들의 불출마나 합치 출마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 혁신안을 발표한 당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것이나, 김 전 대표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변 권력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당 주류를 향한 압박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역시 같은 날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지만, “혁신위원 중 일부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당이 혁신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여야 좋겠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혁신위와 당 주류 간 충돌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 최근 부산 지역구 교회 간증에서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나는 내 할 말 하고 산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혁신위의 권고 이후 현재까지 결단을 표한 중진 의원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 대다수는 아직 결단을 내릴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며 혁신위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략공천 배제와 당 주류 용퇴는 동시에 작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00% 전략공천 배제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 좌담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야구 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려운 조건이라는 점도 혁신위로서는 걸림돌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30~40명 정도의 인제 영입에 나선 상황에서 이들에게 경선을 강요한다면 영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GM·듀폰 등 美 4개 기업 한국 1.5조 투자 정부 “4.5조 효과”...개별 투자액은 안팎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기업이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한국에 약 1조5000억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예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총 1조5천억원(11억6000천만 달러)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GM의 추가 투자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산업부는 자평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에 달한다.

세계적 투자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

예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 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해외에 고순도 나노 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후속 지원과 함께 쉐어 규제 협력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문제 제대로 풀 수 있는 신당 나와야”

이준석·이언주 광주 콘서트

다음달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광주에서 토크콘서트를 열며 행보를 가속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준석&이언주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언주 전 의원과 공동 진행한 토크콘서트는 지난 4일 부산 경성대에 이어 2회차다. 토크 콘서트는 연말까지 대구, 대전 등 전국 순회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로 지지세를 모으며 신당 창당을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계속해서 창당에 대해 암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광주에 제안했던 북핵쇼핑몰이 이슈로 떠오른 이후로 벌써

세 곳에서 추진 계획을 내놨다”며 “광주에는 한 당, 한 계열의 정치인들만 있었는데 왜 하지 못한 일이 많은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처럼 민주당에 돌아가려고 전전긍긍하는 신당이 아닌 제대로 광주 문제를 풀 수 있는 신당이 나와야 한다”며 “광주의 변화를 선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광주에도 계열이 다른 신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창당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보수 후보 중 광주 최고 득표율(12.72%)을 기록한 만큼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정치 개혁은 사람 하나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는 확실하다.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고 신당 창당을 예고하는 발언도 했다. 이언주 전 의원도 창당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국·유럽연합

“北인권·정세 협의의 조속 추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 인권 및 정세와 관련한 양자 협의체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니콜라스 크반스트립 EU 대외관계장관(EEAS) 신임 아테실장을 만나 이같이 공감했다.

한국과 EU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 정책 협의 및 유엔 인권기구 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U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상정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매년 주도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전 단장은 16일에는 브뤼셀에서 현지 안보 및 인권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극 밀착 등 최근 정세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 전화문의 062)970-6000 |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설비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